

기술분석보고서 IT

타이드(346010)



작성기관 서울평가정보(주) 작성자 윤상우 책임

[▶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449-180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타이드(346010)

에너지 ICT를 품은 전력 인프라 솔루션 전문기업

기업정보(2025.09.10 기준)

대표자	조경중
설립일자	2010년 10월 13일
상장일자	2022년 12월 28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주요제품	PLC, DCU, LTE 모뎀

시세정보(2025.09.10. 기준)

현재가(원)	1,40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68
발행주식수	4,860,062
52주 최고가(원)	2,600
52주 최저가(원)	434
외국인지분율	-
주요주주	유창금속공업(주) 조경중, 정명원

■ 전력량계와 서버를 연결하는 지능형 전력망 토탈 솔루션 제공

타이드(이하 '동사')는 2010년 설립된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통신 전문 기업으로, 기존 가공배전선(공중)과 지중배전선(땅)의 전력선을 이용해서 통신하는 전력선통신(Power Line Communication, PLC) 기술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AMI) 및 전기차(EV) 충전 인프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전력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 중이다.

■ ODA를 통한 안정적인 해외 전력 인프라 사업 추진

국내 AMI 시장은 한국전력공사(KEPCO) 중심으로 고도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민간 전력 사물인터넷(IoT) 수요도 점차 확대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인도네시아, 동남아, 아프리카 등 전력 인프라 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동사는 국제 표준 기반의 유·무선통신기술을 내재화하여 다수 국가에서 실증 기반 수출을 진행 중이며, 국내 AMI 시장을 기반으로 해외 B2G 수출에 집중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세르비아 등 국가 전력망 구축 사업에서 실증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 향후 AMI 중심에서 EV 충전, 스마트시티, 전력 IoT 등으로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여 플랫폼 기반 사업 모델로 확장을 계획 중이다.

■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 기반 구축

동사는 단순한 장비 공급 기업을 넘어, 연구개발과 특허 확보를 통해 에너지 ICT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축적하고 있다. 특히 AMI와 EV 충전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선도적으로 적용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또한 ESG 흐름에 부합하는 스마트 시티 및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지속 개발하여, 전력 인프라 산업의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요약 투자지표 (K-GAAP 별도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2	68.3	-63.1	-17.3	-25.4	-22.1	-32.3	-43.7	-17.7	213.7	-373	680	N/A	15.7
2023	86.6	26.8	-29.7	-34.3	-39.1	-45.2	-186.9	-38.3	5,535.2	-657	23	N/A	258.4
2024	60.7	-29.9	-35.2	-57.9	-45.6	-75.1	N/A	-67.2	-231.5	-765	-743	N/A	N/A

기업경쟁력

전력 통신 기반 AMI 시스템 전 주기 기술 내재화	- PLC, LTE 통신모듈, DCU, 서버 플랫폼(HES/MDMS)까지 독자 개발 및 공급 가능 - DLMS/COSEM 기반 국제표준 호환 기술 보유로 국내외 실증 사업 다수 확보
해외 B2G 전력망 시장을 겨냥한 특화 수출 전략	- 인도네시아·세르비아 등 국가 대상 AMI 실증 및 본사업 연계 성과 - 정부 ODA, KOICA, KOTRA 등과 연계된 공공조달형 해외 수출모델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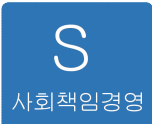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고속 전력선 통신 및 LTE 기반 양방향 통신기술	- DCU, PLC, LTE 모듈, 스마트 검침기 - 스마트 계량기와 데이터 집적 장치 간 통신, AMI 시스템의 핵심 연결부 구성			
소전력 데이터 통합 서버 플랫폼(HES/MDMS)	- DCU, 통합검침서버 시스템 - 다수 계량기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전력사용량 통계관리, 요금 계산 등 AMI 백엔드 솔루션	데이터집중장치 (DCU)	PLC 모듈	LTE 모듈

시장경쟁력

국내외 공공기관 대상 B2G 실적 기반 시장 신뢰 확보	- 한국전력공사 AMI 사업 참여, 한국석유공사 EV 충전기 납품 등 공공 실적 다수 확보 - 인도네시아, 세르비아 등 해외 공공 전력청과의 실증사업 연계 수출 수행
AMI, EV충전, 전력 IoT 등 복합 기술 융합 기반의 제품 포트폴리오 구성	- 단일 제품군이 아닌 토탈 인프라 솔루션으로 확장 가능 - 다양한 국가 및 사업자 수요에 맞춤 대응 가능
스마트시티, 전력 최적화 등 응용 시장 으로의 확장 가능성	- 스마트가로등, EMS, EV 충전 서비스 플랫폼 등 AMI 외 기술의 민간 확장성 확보 - 공공-민간 연계형 프로젝트로 시장 파급력 확대 기대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환경경영	◎ AMI 시스템, EV 충전, 스마트 전력 IoT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 및 탄소 절감 기여 ◎ 전력 사용량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로 국가적 에너지 절약 효과 창출 ◎ 친환경 인프라 확대와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기반 제공
 사회책임경영	◎ 전력 인프라 취약 지역 개선: 인도네시아·세르비아 등 해외 전력망 실증 및 본 사업 참여 ◎ ODA, KOICA 등 국제 협력사업 연계로 글로벌 사회적 가치 실현 ◎ 기부금 지출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 지속
 기업지배구조	◎ 최대주주 및 주요 경영진 현황을 투명하게 공시 ◎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I. 기업 현황

전력량계와 서버를 연결하는 지능형 전력망 토탈 솔루션 제공

동사는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스마트그리드 산업에서 지능형 원격 검침 인프라(AMI)와 전기차(EV) 충전 솔루션 사업을 주력으로, 국내에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세르비아 및 아프리카 등 전력 인프라 수요가 높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 및 국제 금융기구 사업과 연계한 B2G 수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동사의 이러한 전략은 해외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초기 진입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인 시장 점유율 확보를 가능케 한다. 동사는 AMI 사업을 기반으로 안정적 매출을 유지하면서 EV 충전 및 스마트시티 응용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여 에너지 ICT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글로벌 전력 인프라 현대화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 기업 개요

동사는 2010년 10월 설립된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전문기업으로, 2022년 12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본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78, 13층 1309호(가산동, SJ테크노빌)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능형 원격검침 인프라(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AMI)와 전기차(Electric Vehicle, EV) 충전 솔루션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KEPCO)의 AMI 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기반으로, 전력선통신(Power Line Communication, PLC)·무선(Long Term Evolution, LTE) 통신 모듈, 데이터집중장치(Data Concentration Unit, DCU), 데이터 중계 시스템(Head End System, HES)과 데이터 분석(Meter Data Management System, MDMS) 서버 등 전력 데이터 전 주기 관리 기술을 내재화하였다.

최근에는 전기차와 관련하여 충전기(완속·급속)와 배터리 전력 송신 기술(Vehicle to Grid, V2G/ Vehicle to Home, V2H), 자동 사용자 식별 충전 기술(Plug & Charge, PnC)과 같은 차세대 충전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

[표 1] 동사의 주요 연혁

2010	(주)타이드 설립
2011	ISO9001-2008 인증 취득
2012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KEPCO 저전압 AMI 프로젝트 사업 체결
2013	1차 스마트그리드 사업 완료(정부 프로젝트), 자메이카향 DCU, PLC 모델 공급
2014	2차 스마트그리드 사업 완료(정부 프로젝트)
2015	KEPCO HPGP 실증 사업 수행(11,000세대), 루마니아향 DCU 와 PLC 모델 공급
2016	KEPCO Trusted Partner 지정(AMI 사업)
2017	KEPCO 저압 AMI 지중(HPGP) 8종 낙찰, 루마니아 LOI 파일럿 프로젝트
2018	KEPCO 해외 실증 지원사업(인도네시아, 자카르타), KEPCO 저압 AMI 3차 사업 공급
2019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원격검침시스템 사업자 선정
2020	고압원격검침용 LTE 모델 납품 (LGU+), KEPCO 4차 AMI 통신망 구축사업 낙찰(780,000세대)
2021	스마트 EV충전 시스템 사업 진출, KEPCO AMI HPGP 4차 사업 공급
2022	코넥스시장 상장, EV 충전 시스템 개발 (7kW, 11kW AC 충전기), 인니 가로등 관리사업
2023	KEPCO AMI 고압 모/자계기 공급계약 체결, 라오스 AMI 구현 시범사업 완료
2024	고압 AMI 자계기 LTE 모델 계약, 세르비아 일렉트로자파드 AMI MOU 체결

자료: 동사 홈페이지 및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동사 대표이사 조경중은 1988년 5월 뉴욕 주립대학원(MBA)을 졸업하였고, LG전자 본부장, Giga Telecom 부사장, 유창금속공업(주) 전무이사를 역임하며 무선 통신망 산업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였으며, 2014년 6월 동사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경영 전반을 총괄함으로써,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산업 내에서 동사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 주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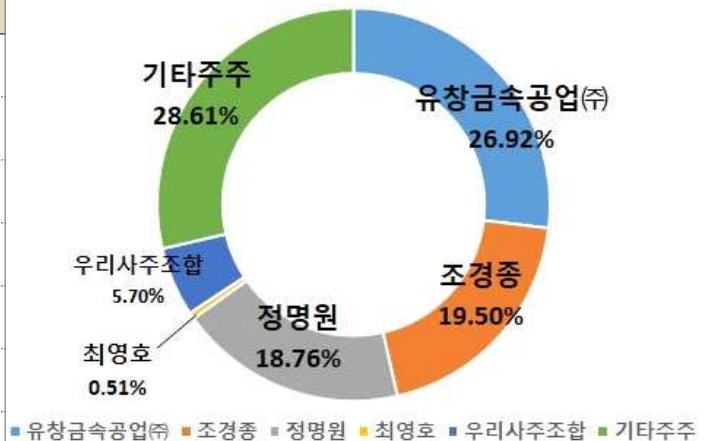
2024년 12월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유창금속공업(주)로, 전체 발행주식(4,860,062주) 중 총 1,308,46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지분의 26.92%에 해당하며, 동사의 최대주주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경중 대표이사가 947,713주로 전체의 19.5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정명원과 최영호는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으로 각각 911,882주(18.76%), 24,301주(0.51%)를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사주조합이 277,070주(5.70%)를 보유하여, 내부 직원의 주주 참여를 통한 책임 경영 및 직원의 동기 부여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소액주주 및 외부 투자자로 구성된 기타주주가 1,390,636주(28.61%)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분 구조는 유창금속공업(주), 조경중 대표이사 등 주요 인물 및 법인이 전체 지분의 65.69%를 확보하고 있어 경영권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구조로 판단된다.

[표 2] 동사의 주요 주주 현황

(단위 : 주, %)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주1)}	지분율(%)	관계
유창금속공업(주)	1,308,460	26.92	최대주주
조경중	947,713	19.50	대표이사
정명원	911,882	18.76	특수관계자
최영호	24,301	0.51	특수관계자
우리사주조합	277,070	5.70	
기타주주	1,390,636	28.61	
합계	4,860,062	100.00	



주1) 전액 의결권이 있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제외한 보통주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사업 영역

▶ AMI 부문

동사는 설립 초기부터 AMI 사업을 통해 성장해 왔다. AMI는 기존에 설치된 가공배전선과 지중배전선 전력망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그리드 구현을 위해 전기 사용량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로, 이러한 광대역 PLC 기술인 HomePlug Green PHY-PLC(HPGP-PLC)를 상용화에 성공하여 한국전력공사 신기술검증에서 94% 검침율의 제품성능을 보여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 AMI사업 유선 PLC

▶EV 충전 솔루션 부문

▶ 신규 사업 부문

[그림 1] 동사의 사업 영역



제품별로는 LTE 모듈 부문이 2024년에 48.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큰 폭으로 성장하며 전체 매출의 80.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14.2억 원) 대비 244.4% 증가한 수치로, 한국전력공사의 AMI 보급 사업 참여에 따른 동사의 핵심 매출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반면, 기존 주력 제품인 PLC 모듈, DCU 매출은 2022년 18.0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2023년 0.6억 원, 2024년 0.5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스마트가로등,

부품 등의 기타 제품은 2023년 18.5억 원에서 2024년 2.4억 원으로 86.8% 급감하였으며, PLC 모듈 관련 상품도 2024년 소계 7.3억 원으로 전년(51.1억 원) 대비 85.7% 급감, 기타 용역 매출 역시 2024년 1.6억 원으로 전년(2.2억 원) 대비 소폭 감소세를 나타냈다.

동사 경영진은 이러한 실적 변동의 원인을 단순한 수주 편차뿐 아니라, 국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서도 찾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가가 과거 확대했던 유동성 공급을 회수하기 위해 양적 긴축 정책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었고, 미·중 무역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어 교역 둔화, 민간 소비 위축, 설비투자 지연 등이 발생하였고, 이는 동사의 해외 프로젝트 지연 및 예산 축소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경기 지연 요인은 동사가 추진하는 지능형 전력망 및 에너지관리 시스템 사업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매출 성장세를 제한하였다.

한편, 경영진은 장기적 관점에서 AMI 및 EV 충전 인프라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세르비아 등 해외 B2G 대규모 프로젝트가 본사업 단계로 진입할 경우 매출 회복의 가능성이 크고,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정책 또한 중장기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정책적 수요와 해외 진출 성과를 기반으로 매출 안정화와 성장세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경영진의 판단이다.

[표 3] 동사의 주요 제품 판매실적

(단위 : 억 원)

매출유형	품목		판 매 실 적						증감률 (2024년 기준)
			2022년		2023년		2024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제품	DCU, PLC	수출	-	-	¹⁾ 0.0	²⁾ 0.0%	-	-	-17.1%
		내수	18.0	26.4%	0.6	0.7%	0.5	0.8%	
	LTE 모듈	수출	-	-	-	-	-	-	244.4%
		내수	0.6	0.9%	14.2	16.4%	48.9	80.5%	
	기타 (스마트가로등, 부품 외)	수출	15.2	22.2%	16.1	18.6%	-	-	-86.8%
		내수	-	-	2.4	2.8%	2.4	4.0%	
상품(PLC 모듈, HPGP MCU)		수출	-	-	1.5	1.8%	2.2	3.6%	-85.7%
		내수	25.5	37.4%	49.6	57.2%	5.1	8.4%	
기타, 용역		수출	-	-	³⁾ 0.1	0.1%	⁴⁾ 0.0	⁵⁾ 0.0%	-25.8%
		내수	9.0	13.2%	2.1	2.4%	1.6	2.7%	
합계		수출	15.2	22.2%	17.7	20.5%	2.2	3.6%	-87.6%
		내수	53.1	77.8%	68.9	79.5%	58.5	96.4%	-15.1%
		계	68.3	100.0%	86.6	100.0%	60.7	100.0%	-29.9%

* 1) 26만 원, 2) 0.003%, 3) 636.8만 원, 4) 126.5만 원, 5) 0.021%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 시장 동향

스마트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와 글로벌 시장의 확장 기회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 ICT 산업은 에너지 효율화, 탄소중립, 전기차 확산 등 글로벌 정책 기조와 맞물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시장은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AMI 보급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정책을 기반으로 추가 성장이 가능하며, 해외 시장의 경우 동남아·동유럽·아프리카 등 전력 인프라 수요가 큰 신흥국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전력 인프라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화와 친환경 전환을 배경으로 스마트시티와 연계된 전력 데이터 관리 솔루션 수요가 꾸준히 시장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 AMI 시장의 특성

▶ 시장의 특성

스마트그리드 시장은 전력의 생산, 송배전, 소비 전 과정에 ICT를 접목하여 에너지 효율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 기반 산업이다. 이 시장은 발전소와 전력망 운영자뿐 아니라 가정과 기업을 연결하는 최종 사용자 영역까지 아우른다. 이 가운데 AMI 인프라는 전력 사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전송·관리하여, 전력회사와 소비자 간 양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구성 요소이다. 따라서 AMI 인프라는 스마트그리드 생태계 전반에서 데이터 기반 에너지 관리를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같은 분산형 전원 연계의 기초로 기능하며,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기반 산업으로써, 다른 응용 서비스들이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시장의 성장성

AMI 인프라는 스마트그리드 보급 확산과 더불어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분야 중 하나이다.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 시장은 노후화된 계량기의 교체 수요와 통신망 고도화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2025년 4월 스페인 반도에서 원인불명의 전력 급강하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와 더불어, 각국 정부는 블랙아웃(범국가적 대규모 정전)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한 전략으로 AMI 관련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은 선진국에서 교체 및 업그레이드 중심, 신흥국에서는 국제 개발기구의 지원과 맞물려 신규 구축 중심으로 성장하며, 2030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11.2%의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는 AMI 인프라가 단순 검침을 넘어 에너지 관리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 경쟁요소 및 정책·경기 변동의 특성

AMI 인프라는 국가 에너지 인프라와 직접 연결되는 특성상 경쟁 요소가 단순한 기업 간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을 넘어 정책 지원과 예산 확보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 주요 고객이 공공기관과 전력회사라는 점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과 에너지 디지털화 정책이 시장 확대의 가장 큰 동력이다. 반대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금리 정책, 미·중 무역갈등과 같은 지정학적 요인은 교역 둔화와 투자 지연을 불러와 사업 추진 속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효율화와 친환경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에, AMI 인프라는 경기 변동 속에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 AMI 시장의 국내 및 글로벌 핵심 트렌드와 전망

국내 AMI 시장은 2010년대 초반부터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본격 보급이 시작되어 2024년에는 약 6.2억 달러 규모에 도달하였다. 이미 2천만 호 이상이 설치되어 신규 수요는 제한적이지만, 향후 시장은 노후 계량기 교체와 통신망 고도화를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Market Research Future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미터 AMI 시장은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약 9.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2년에는 약 13.1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약 10년간 시장 규모가 두 배 이상 성장하는 추세로, 단순한 계량기 교체를 넘어, 업그레이드 수요와 함께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과 에너지 효율화 정책, 신축 아파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의무화 등이 AMI 시스템의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AMI와 연계된 EMS,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수요도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AMI 시장은 단순 계량기 교체에 머무르지 않고 데이터 기반 전력 관리 서비스 시장으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AMI 시장은 선진국의 업그레이드 수요와 신흥국의 신규 구축 수요가 동시에 확대되면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IMARC Group에 따르면 전 세계 시장은 2024년 약 259.9억 달러에서 2032년 611.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이는 연평균 11.2%의 성장률에 해당한다. 선진국 시장은 기존 설치분의 통신방식 전환(PLC→LTE, RF), 데이터 보안 강화, 클라우드 기반 관리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신흥국은 국제개발기구와 ODA 지원을 기반으로 대규모 AMI 구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AMI 인프라는 전기차 충전, 신재생 에너지 관리, 스마트시티 솔루션과 연계되면서 단순 계량기를 넘어 통합 에너지 관리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림 3] 국내 AMI 시장 규모

(단위 : 억 달러, %)



자료: Market Research Future, South Korea Smart Meters Market Research Report - Forecast to 2035, Sep 202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그림 4] 글로벌 AMI 시장 규모

(단위 : 억 달러, %)



자료: IMARC Group,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AMI) Market Report 2025-2033, Report ID: SR112025A5987,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I. 기술분석

특허와 R&D 성과를 통한 에너지 ICT 핵심 기술력

동사는 AMI, EV 충전, 스마트시티로 이어지는 에너지 ICT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을 꾸준히 높이며 PLC-LTE 통신, V2G-PnC 등 차세대 기술을 상용화하였다. 특허와 인증 확보는 기술 신뢰성과 시장 진입 장벽을 동시에 강화하며, 동사가 글로벌 전력 인프라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 핵심 기술 개요 및 적용 제품

AMI 통신은 크게 유선통신인 PLC와 무선통신(Wi-SUN, ZigBee, LTE 등)으로 구분되며, 동사는 국가 산업인 전력 운영에 있어서 전력량계와 서버를 연결하는 유선·무선·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동사의 핵심 기술이 적용된 PLC 모뎀은 가정의 220V 전원선을 데이터 통신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HomePlug Green PHY(HPGP) 기술로, 별도의 통신선을 설치하지 않고도 계량기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 효율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이는 ‘가정용 전력선을 데이터 통신망으로 활용’ 하는 점에서 흥미로운 기술 포인트가 된다. 실제로 기존 통신이 어려웠던 지하 구간에서도 안정적인 검침을 가능하게 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유일한 대안으로 채택되었다. DCU는 수백 대의 계량기 데이터를 집약해 서버로 전송하는 장치로, 전체 AMI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 이 두 제품은 국내외 전력망 사업에서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동사는 유선 기반 솔루션 외에도 무선 통신을 활용한 LTE 모뎀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LTE 모뎀은 설치가 간편하고, 대규모 구간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동사의 LTE 모뎀 제품군은 고압·저압 AMI뿐만 아니라 태양광 원격검침 모뎀에도 적용되어 공기업 납품 실적을 확보했으며, 국내외 AMI 프로젝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Internet Protocol version 6(IPv6) 기반의 무선 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향후 확장성과 표준 호환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강점을 내세워 매출 비중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동사는 AM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응용 제품도 개발하고 있다. 스마트가로등 및 관련 부품은 원격 제어를 통해 에너지 절감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하며,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는 국제 표준인 Open Charge Point Protocol(OCPP) 규격을 적용했으며, 전기차-전력망(Vehicle to Grid, V2G)과 충전 사용자 자동식별 기술(Plug & Charge, PnC) 같은 차세대 기술을 지원해 미래 전력망과의 연계 가능성을 확보했다. 이 외에도 신호등, 에너지 관리용 기타 부품을 공급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군은 단순한 장비 공급을 넘어 스마트시티와 에너지 ICT 플랫폼 구축의 핵심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그림 5] 동사의 핵심 기술 및 적용 제품

DCU, PLC 모뎀		LTE 모뎀		스마트가로등 및 EV 솔루션 장치	
					
Network Gateway / DCU (데이터 집중화 장치)	PLC (전력선 통신)	LTE Modem (LTE/NB-IoT)	RF Repeater (HPGP PLC 기반)	(스마트가로등 DCU)	(EV 충전 시스템)

자료: 동사 홈페이지, AMI, 스마트가로등 사업 카탈로그,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연구개발활동

동사는 최근 3년간 매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2022년 18.6%에서 2023년 23.3%, 2024년 34.1%까지 확대하며 기술 경쟁력 강화를 이어왔다. 연구개발 과제는 AMI 통신 인프라(PLC·LTE 모뎀), EV 충전 솔루션, 스마트시티 응용 기술을 중심으로, 국내외 총 5건의 정부과제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의 고압 AMI LTE 모뎀 개발, OCPP 규격 EV 충전기 출시, 동남아시아 AMI 실증 프로젝트 등 상용화와 직결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향후 해외 시장 진출의 기반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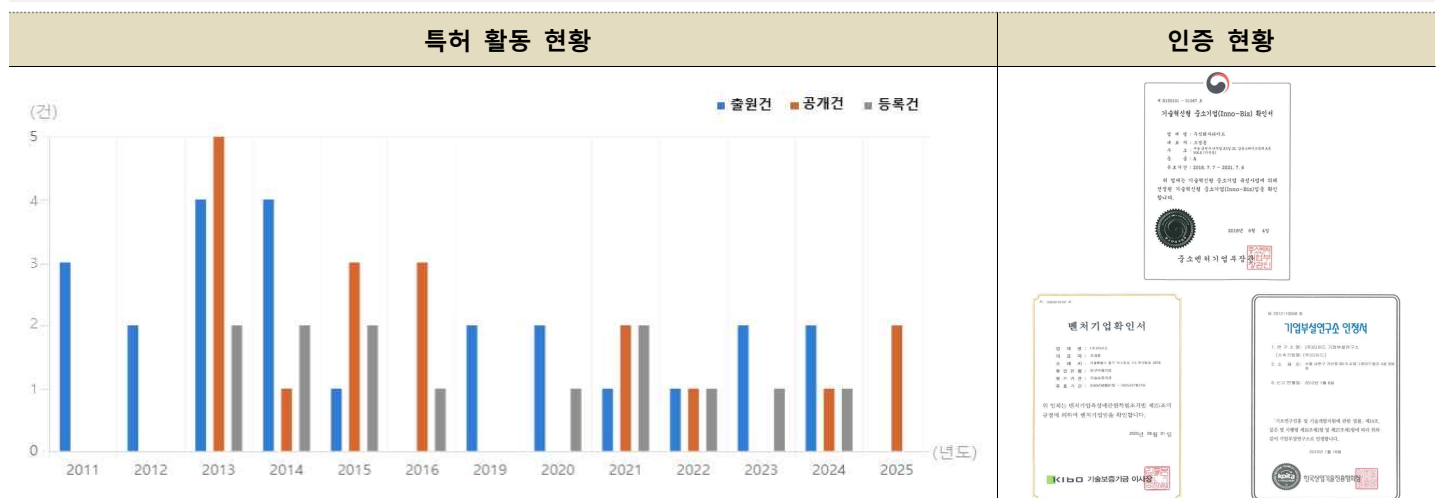
동사의 연구개발활동은 단순 기술 축적이 아닌 매출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용화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EV 충전기는 국내 인증을 넘어 해외 호환성을 확보해 이미 공급 실적을 쌓고 있으며, AMI 장비는 한국전력공사 신기술검증에서 94%의 검침율을 달성함으로써 안정성과 신뢰성을 입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해외 전력사에서 공급자로 선정되었다. 연구 성과는 에너지 효율 증대, 국제 표준 호환성 확보, 스마트시티 확산으로 연결되며, 이는 동사가 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생산라인 확보를 위해 채택한 외주생산 구조 속에서도 기술 지배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전력 ICT 시장에서 차별화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 지식재산권 및 인증 현황

동사는 AMI와 EV 충전 솔루션 등 핵심 사업과 밀접히 연관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PLC 기반 통신 시스템, 통합모뎀 기술, 원격검침 계량기, 무선충전 시스템 관련 특허가 있으며, 이는 AMI 인프라 안정성 확보와 EV 충전 사업 확장에 직접 연결된다. 이러한 특허는 단순 요소기술이 아닌 실제 한국전력공사 사업 및 해외 실증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성이 높아 상용화 연계성이 강하다. 또한 이노비즈, 벤처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등 다양한 공신력 있는 대외 인증을 확보해 기술 신뢰성과 파트너십 기반의 확장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외주생산 구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와 인증을 통해 기술 지배력과 시장 신뢰도를 유지하여 해외 실증 및 대규모 프로젝트 대응 시 중요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동사가 확보한 지식재산권과 인증은 단순한 방어적 자산을 넘어, 향후 시장 확대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특히 AMI와 EV 충전 분야는 국제 표준화 흐름 속에서 특허 보유 여부가 곧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동사의 기술적인 성장 잠재력은 더욱 높게 평가된다.

[그림 6] 동사의 특허 활동 및 인증 현황



자료: KIPRIS (2025.08.28.), 동사 홈페이지,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PEST 분석

동사의 사업 환경은 기술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정치·경제·사회·기술 전반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PEST 분석을 통해 외부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동사의 사업 전략과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AMI 구축 계획이 사업 확장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미·중 무역갈등과 같은 지정학적 불안은 해외 수출과 글로벌 프로젝트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금리 인상 기조와 글로벌 경기 둔화가 단기적 수요 회복을 늦출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AMI와 EV 충전 인프라 시장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스마트시티 확산과 ESG 경영 강화가 동사의 AMI, 스마트가로등, EV 충전 솔루션이 사회적 가치 창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특히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감축 효과는 공공과 민간에서 모두 긍정적이다.

기술적으로는 PLC·LTE 모뎀과 같은 스마트그리드 관련 장치 및 V2G, PnC 등의 전기차 관련 국제 표준 기반 기술이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동사의 지속적인 특허 확보와 표준 호환성 강화는 기술 차별성과 시장 진입 장벽을 동시에 제공하며,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분석을 종합하면, 동사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사회적 가치와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기회 요인을 확대할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된다. 특히 AMI와 EV 충전 분야는 정책 지원과 기술 표준화가 동시에 진전되는 영역이기에, 외부 환경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동사의 성장 가능성과 시장 내 지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7] PEST 분석

➤ Political (정치)

- 정부 탄소중립 정책, 한국전력공사 중심 AMI 구축 확대
- 미·중 무역갈등 등 지정학 리스크
→ 해외 사업 지연 가능성

➤ Economic (경제)

-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인상
→ 단기 수요 회복 지연
- 에너지 효율화·디지털 전환
→ 장기 성장 동력

➤ Social (사회)

- 스마트시티 확산, ESG 경영 강화
→ AMI·EV 충전 수요 증가
- 에너지 절감·탄소 감축 효과
→ 공공·민간 긍정적 평가

➤ Technological (기술)

- PLC, LTE, V2G, PnC 등 국제표준 기반 기술 경쟁력
- 특허 확보·표준 호환성 강화
→ 차별성·시장 진입 장벽 확보



IV. 재무분석

대내외 환경 악화로 인한 매출액 감소, 점진적 회복 기대

동사는 2024년 경제 침체, 시장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수주가 감소함에 따라 최근 매출액이 감소세를 보였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2022년 적자 전환 후 영업적자가 지속 중인데, 반도체 수급 불안으로 고가 원재료를 매입해야 했던 점이 원가율 상승의 주 요인으로 판단된다. 재무안정성 측면에서는 자본잠식 상태로 전환되었으나, 향후 수익성 개선을 통한 결손금 보전으로 재무안정성 지표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점진적 매출 회복 기대

동사의 매출액은 2020년 4차 저압 AMI 사업 수주를 통해 2020년 110.1억 원, 2021년 185.1억 원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국내시장경쟁 등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은 2022년 68.3억 원, 2023년 86.6억 원, 2024년 60.7억 원으로 2024년의 경우 직전년도 대비 29.9%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유형별 매출실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품 부문 내 'DCU, PLC'의 경우 2022년 18.0억 원, 2023년 0.6억 원, 2024년 0.5억 원으로 감소추세를 보였고, 'LTE 모듈'의 경우 2022년 0.6억 원, 2023년 14.2억 원, 2024년 48.9억 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기타'의 경우 2022년 15.2억 원, 2023년 18.5억 원, 2024년 2.4억 원으로 변동성을 보였다. 상품 부문의 경우 2022년 25.5억 원, 2023년 51.1억 원, 2024년 7.3억 원으로 증감을 보였고, 기타, 용역 부문의 경우 2022년 9.0억 원, 2023년 2.2억 원, 2024년 1.6억 원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동사의 수출현황은 2022년 15.2억 원, 2023년 17.7억 원, 2024년 2.2억 원으로 증감을 보였다. 연도별 수출국에 따른 수출액을 보면, 2022년 인도네시아 1.3억 원, 중국 13.9억 원을 기록하였고, 2023년 인도네시아 1.0억 원, 중국 15.2억 원, 말레이시아 0.0억 원(26만 원), 홍콩 1.5억 원을 기록하였다. 2024년의 경우 인도네시아 0.4억 원, 중국 1.8억 원을 기록하여 수출액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력

동사의 최근 3년간 매출원가율을 살펴보면, 2022년 66.9%, 2023년 86.8%, 2024년 88.4%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동사가 영위하는 업종 특성상 수주 후 계약기간 동안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는데, 반도체 수급 대란시기에 계약 기간 중 납기를 준수하기 위해 평년보다 높은 가격으로 원재료를 매입함에 따라 제품매출원가율이 높아져 원가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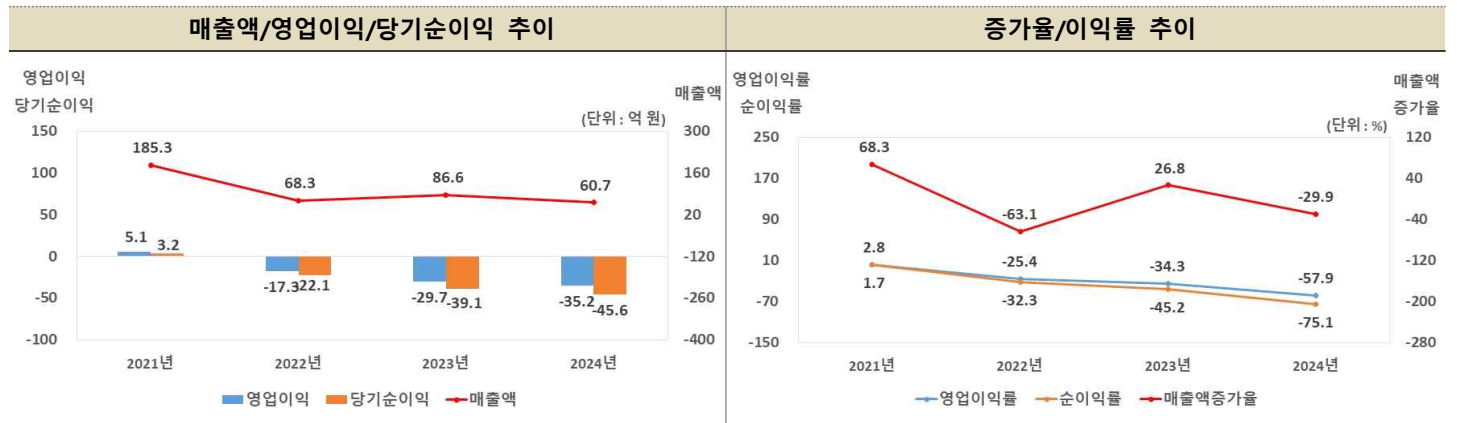
영업이익의 경우 2022년 적자 전환되었는데,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은 2022년 영업손실 17.3억 원, 2023년 영업손실 29.7억 원, 2024년 영업손실 35.2억 원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최근 3년간 경상연구개발비는 2022년 18.3억 원, 2023년 20.2억 원, 2024년 20.7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왔으며, 이는 기술개발을 통한 매출원을 다각화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2021년 3.2억 원을 시현하였으나, 2022년 적자 전환되었고,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은 2022년 당기순손실 22.1억 원, 2023년 당기순손실 39.1억 원, 2024년 당기순손실 45.6억 원을 시현하였다. 2024년의 경우 외화 관련 손실 1.3억 원 및 지분법손실 1.2억 원 등의 발생으로 영업외비용 6.3억 원이 계상되었고, 전년 동기(3.1억 원) 대비 103.6% 증가하여 손실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동사는 매출액이 감소함과 더불어 급여 등 준고정비성 경비 및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익성이 적자를 기록하였다. 동사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매출처 다변화 및 원가절감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수익성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8]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 억 원, % K-GAAP 별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사업보고서(2024.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관계사 지원 가능성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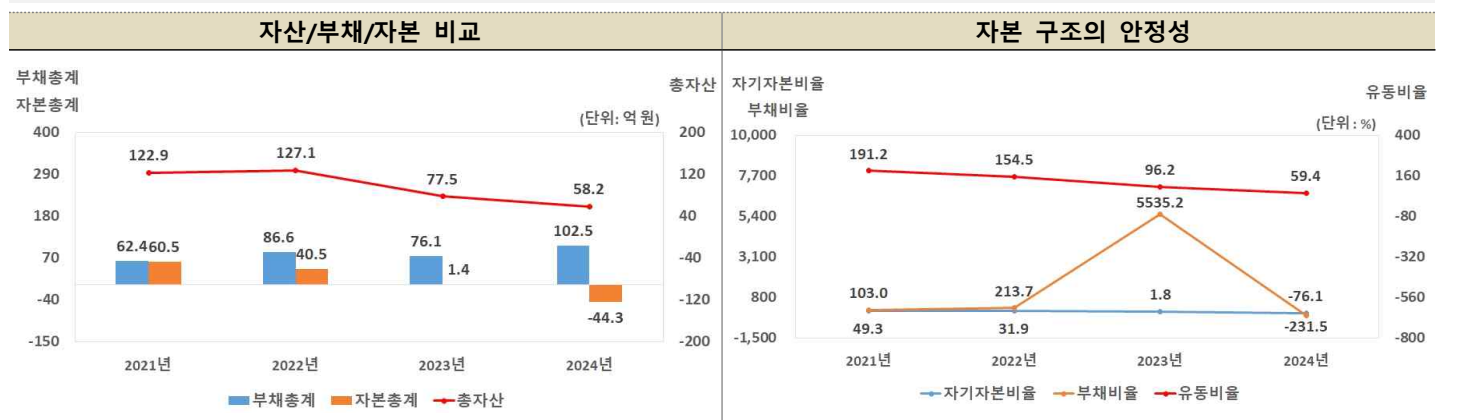
동사는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2022년 '제3차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고, 이를 통해 자본금(0.2억 원) 및 자본잉여금(1.3억 원), 전환권대가(0.6억 원)로 총 2.1억 원의 자본을 확충하였다. 2024년 부채 총계는 102.5억 원으로 직전년도(76.1억 원) 대비 34.7% 증가하였는데, 단기차입금이 40.8억 원에서 59.5억 원으로 45.7%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동사의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2022년 213.7% 수준이었으나, 2023년 부분자본잠식 상태로 진입하여 5,535.2%로 상승하였다. 2024년에는 결손금 누적으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 자기자본비율 또한 2022년 31.9% 수준이었으나, 2023년 1.8%, 2024년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유동성 측면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유동비율은 2022년 154.5%, 2023년 96.2%, 2024년 59.4%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24년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1.7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9]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 억 원, % K-GAAP 별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사업보고서(2024.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동사의 최대주주는 ‘유창금속공업(주)’로, 2024년 기준 요약 재무정보에 따르면 매출액은 1,689.6억 원, 영업이익은 54.9억 원, 당기순이익은 31.5억 원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재무성과는 양호한 수익성과 현금창출력을 기반으로 관계사 차원의 재무적 지원 가능성(유상증자 참여, 자금지원 등)을 뒷받침하며, 이는 향후 동사의 자금조달 안정성과 재무적 복원력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억 원, % K-GAAP 별도 기준)

항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출액	185.3	68.3	86.6	60.7
매출액증가율(%)	68.3	-63.1	26.8	-29.9
영업이익	5.1	-17.3	-29.7	-35.2
영업이익률(%)	2.8	-25.4	-34.3	-57.9
순이익	3.2	-22.1	-39.1	-45.6
순이익률(%)	1.7	-32.3	-45.2	-75.1
부채총계	62.4	86.6	76.1	102.5
자본총계	60.5	40.5	1.4	-44.3
총자산	122.9	127.1	77.5	58.2
유동비율(%)	191.2	154.5	96.2	59.4
부채비율(%)	103.0	213.7	5,535.2	-231.5
자기자본비율(%)	49.3	31.9	1.8	-76.1
영업현금흐름	63.3	-37.4	-37.8	-19.6
투자현금흐름	-16.2	8.7	0.9	4.8
재무현금흐름	-0.6	21.9	-3.1	12.4
기말현금	50.8	44.1	4.1	1.7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사업보고서(2024.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동사 실적 전망

동사의 매출은 2022년 68.3억 원, 2023년 86.6억 원으로 일시적 반등을 보였으나, 2024년에는 60.7억 원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특히 주력 제품군이었던 DCU·PLC의 매출이 2022년 18.0억 원에서 2023년 0.6억 원, 2024년 0.5억 원으로 축소되고, 상품 부문도 2022년 25.5억 원, 2023년 51.1억 원에서 2024년 7.3억 원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러나 2025년에는 LTE 모뎀 매출 확대와 기타 제품군 회복에 힘입어 총 매출액은 67.3억 원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LTE 모뎀 매출은 최근 가장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0.6억 원 수준에 불과했으나 2023년 14.2억 원으로 급증했고, 2024년 48.9억 원에 이어 2025년에는 55.5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전력공사 AMI 사업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시장에서의 LTE 기반 원격검침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DCU·PLC 매출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중구간 전력망의 한계 대안으로 여전히 채택되고 있어 2025년 소폭 회복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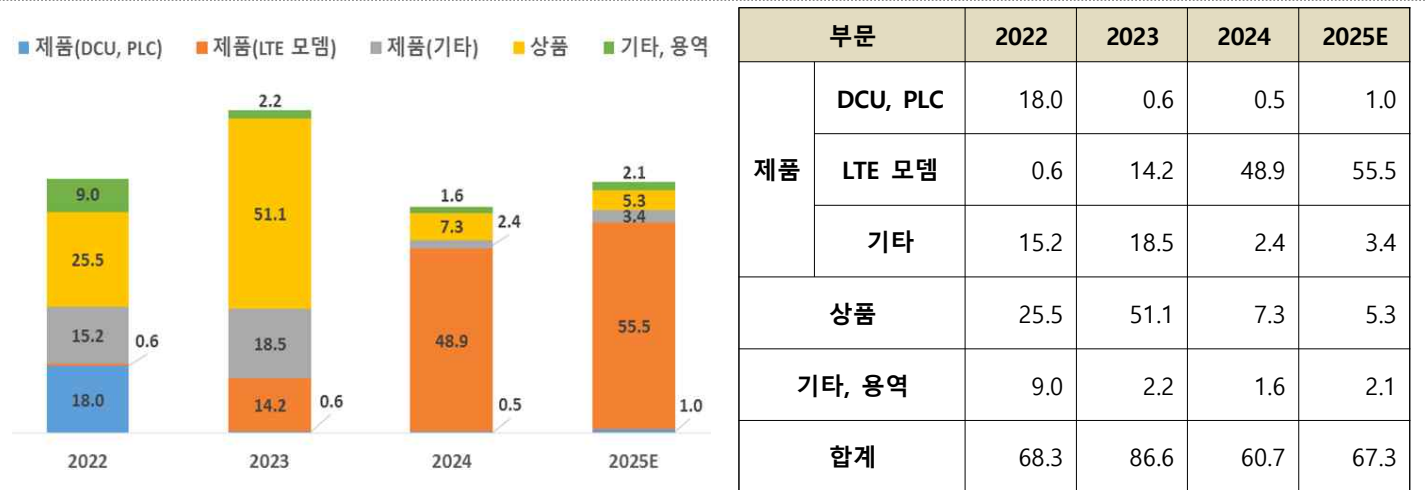
제품(기타) 부문은 스마트가로등 및 EV 충전 시스템 관련 장치, 기타 부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2년 15.2억 원에서 2023년 18.5억 원까지 성장했으나 2024년 2.4억 원으로 위축되었다. 그러나 동사는 2023년 V2G·PnC 기술 기반 완속 충전기(7kW, 22kW)를 상용화한 바 있으며, 향후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참여가 본격화되면 2025년에는 3.4억 원 규모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용역 부문은 2022년(9.0억 원), 2023년(2.2억 원), 2024년(1.6억 원) 매출액 역시 소규모지만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신사업 진출과 맞물려 2025년 2.1억 원으로 예상되며, 매출 기여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동사의 성장성은 단순한 기존 제품 판매 회복을 넘어서, 판매전략의 변화 및 확대를 통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 2024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제품군 다변화를 통해 기존 한국전력공사 중심 AMI 시장의 의존도를 낮추고 EV 충전기 및 스마트가로등 등 신제품군을 추가하였다. 둘째, 해외시장 진출을 강화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세르비아, 아프리카 등에서 실증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 매출 성장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셋째, 매출처 다변화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난방공사, 산업자원부 등 다양한 공공기관 및 해외 전력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동사의 단기 실적은 주력 제품군 부진으로 위축된 모습이지만, LTE 모뎀 중심의 고성장, EV 충전 및 스마트시티 분야의 신제품 상용화, 해외 실증사업 확대, 매출처 다변화 전략을 통해 점진적인 매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5년 이후 LTE 모뎀 매출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동사가 에너지 ICT 시장에서 통신 기반 인프라 기업으로 구조 전환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0] 동사 연간 실적 전망

(단위 : 억 원, % K-GAAP 별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기업현황보고서(2025.06)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LTE AMI 수주로 국내 실적 반등 신호 및 동남아와 동유럽으로의 확장 가속

동사는 통신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기반으로 LTE AMI 라인업을 완성하고, 2025년 초 고압자계기(LTE) 입찰에 낙찰되어 단기 매출을 가시화했다. 기존 계량기 기능과 모뎀을 대체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송수신하는 SMGW-C형 모뎀 및 저압 LTE 모뎀 개발이 진행 중이며,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실증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세르비아 입찰 참여로 동유럽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국내 반복 수요와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이 맞물리며 점진적 회복과 외형 반등이 기대된다.

■ 국내 통신사 제휴와 제품 로드맵이 이끄는 수요 회복

동사는 대내외 환경 악화로 2024년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9.9% 감소하였으나, 국내사업의 경우 2025년 초 고압자계기(LTE) 입찰에 낙찰되어 약 30.0억 원의 매출을 확보하였으며, SMGW-C형(Smart Meter Gateway-C type) 모뎀과 저압 LTE 모뎀 개발을 통해 저압 교체·고도화 수요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 중이다. 2025년에는 LTE 모뎀 비중 확대가 전사 매출 회복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며, 이후에는 저압 교체 사이클과 통신망 전환(LTE/IPv6) 추세가 추가 성장 여력을 제공할 것이다.

■ 글로벌 전력망 안정성 이슈, 기술 수요 확대 예상

2025년 4월 발생한 스페인·포르투갈 대정전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노후화된 전력망 간 불균형이 야기한 대표적 인프라 리스크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사건은 글로벌 전력 시장에서 AMI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통신 기술, 그리드 안정화 솔루션에 대한 수요 확대를 가속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HPGP 기반 PLC 통신, LTE 모뎀, DCU 기술을 갖춘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서, 급변하는 전력망 수요에 기술적으로 대응 가능한 역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기후와 날씨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풍력·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을 중심으로 스마트 계량기 인프라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동사의 통신 기반 AMI 기술은 해외 전력 시장에서 프리미엄 기술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향후 해외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및 확산에 있어 전략적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현재 전개 중인 동남아 및 동유럽 시장에서의 사업 확대와 맞물려 실적 개선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 ODA 레퍼런스 기반의 해외 시장 다각화

스마트그리드의 실시간 계측·제어 기능은 EV 충전 시스템의 통신 기술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 그동안 동사가 축적한 통신·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EV 충전 인프라로의 확장이 자연스럽다. 또한, 동사의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의 AMI/스마트시티 실증 경험은 조달·인증·현지 운영 측면의 신뢰도를 높여 본 사업 전환 가능성을 키우고 있고,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가로등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병행 추진 중이다.

동사는 최근 세르비아 입찰 참여를 통해 새로운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며, 동남아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동유럽까지 다변화함으로써, EV 충전 인프라 분야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다. 중단기에는 ODA 및 현지 전력회사 협력형 패키지(AMI 장비+플랫폼+운영)를 내세워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EV 충전·스마트가로등 시스템 등 응용 제품으로 기존 고객 대상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업그레이드 제안이 가능하다. 예상되는 환율·정책 리스크는 분산 조달, 장기공급 계약, 현지 파트너십으로 관리한다는 전략이 예상된다.

타이드(346010)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N/A	-	-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네이버 증권(2025.09.10)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타이드	O	O	X

* 2025년 8월 13일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음.

* 2025년 7월 9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음.